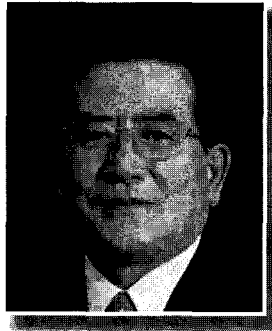


## 양육산업의 견인차가 되길 바라며...



송 석 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한국양육」의 월간 전환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지난 5년간 국내 양육전문지로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국양육협회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양육산업은 70년대 중반에는 사육두수가 3천여 마리에 불과했으나, 녹용의 생산·판매에 따른 고소득 축종으로 각광받으면서 80년대 말까지 매년 100% 이상의 고속성장을 거듭하였고, 작년 말에는 사육규모가 15만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게 된 데에는 양육산업이 친환경·노동절약형·고부가가치의 산업인 점이 많이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 양육인들이 많은 땀을 흘려 왔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92년부터 사슴이 수입되기 시작하자 가격과 유통의 불안정 현상이 나타났으나 우리 양육인들이 한데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왔고, 살얼음판 같았던 지난 97년의 IMF도 무난히 견디어 왔으며, 생축 유통 문제나 외국산 녹용의 국산둔갑 등에 대한 외부의 관심과 지원도 끌어내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양육」이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전환

된다 하니 보다 더 많은 소식과 정보가 농가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월간으로의 전환은 우리 양육인들을 위한 일도 두배로 하고 양육전문지로서의 기능도 두배로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 양육업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녹용생산량의 80%를 국내에서 소비하는 엄청난 시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녹용에 밀려 국내에서 생산한 녹용의 판매를 우리농가에서 염려해야 하는 문제, 절편녹용 수입 움직임이나 외국산 녹용의 국산 둔갑 문제, 생축의 불공정 유통문제 등은 우리 모두가 손잡고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한국양육」의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농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길잡이가 되어 방향을 잡아주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총동원하여 모두가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양육인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해 초부터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온 세계가 시끄럽고 축산물 소비도 많이 위축되고 있지만, 무

엇보다 녹용과 사슴고기 등 양록산물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수식품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 올바른 먹거리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 홍보에도 많은 배려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리 농협에서도 사슴의 능력검정과 육종체계 확립을 통해 생축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사슴개량사업을 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록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자로 구성된 양록협회와 양록조합이 서로 힘을 합쳐 모든 어려움을 풀어 나간다면 농가소득향상으로 직결되는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한국양록」의 월간 전환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 샘물같은 정보 제공하는 전문지 역할 기대



심정석 회장  
국제녹용과학기술협회

한국 양록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여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 국산 녹용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제1회 국제 녹용과학기술 심포지엄

에 스폰서로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양록협회의 임원 및 최창호 회장님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약하는 월간 「한국양록」의 무한한 발전과 한국 양록인에게 샘물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제 녹용 협회에서는 한국 및 세계 양록산업에 밀거름이 되고자 지난해 국제 녹용과학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녹용 연구의 방향을 재조명하

였으며, 국제 녹용임상 학술회를 소규모로 개최하여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30편의 최신 녹용과학 및 생산기술의 주제 논문들이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어 한 권의 책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영문판인 이번 녹용 과학 기술 책은 다섯 부문, 생물학, 녹용화학 및 생리활성물질, 녹용임상의학, 식품영양 및 생산기술학으로 구분되어 주옥같은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금번 발행된 녹용과학기술 책은 동서양의 녹용 연구를 총 망라한 명실 상부한 전문 녹용 참고서로 사슴 및 녹용을 다루는 전문 생산인으로부터 일반 소비자 및 마케팅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녹용의 건강 식품 시